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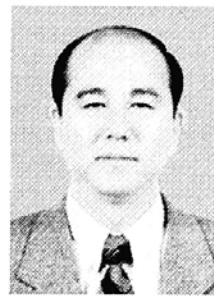
진정한 光復

세상에서는 새천년을 앞두고 상품이 쏟아지고 새천년을 주제로 하는 행사 기획되고 화려한 미사여구의 글들이 써지고 한마디로 야단이다. 하지만 인간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데 연대표가 바뀐다고 세상이 저절로 달라지겠는가.

우리가 사는 지난 천년을 고난 속에서 보았다. 특히 지난 세기는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로 시작했고 민족간 대결과 분단으로 마감하고 있다. 겨레의 고난이 세기를 넘어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 천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우리는 20세기의 마지막 광복절을 보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독립된 지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석에는 그 암울했던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 새시대는 이런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세기는 우리겨레가 외침과 식민지의 고통속에서 살아왔으며 자아를 완전히 부정할 때를 겪었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민족 문화는 소멸되고 저급한 일본문화를 포함한 낡고 조잡스러운 외래 문화가 우리생활 속에 들어와 자리잡았다. 사상 정신적으로도 눈에 띄는 자리가 사라진 채 민족의식이 완전히 정화되었다. 개인 의식도 결국은 자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겨레의 진로는 우리가 개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우리의 의식에 깎여 들어 있는 식민지식과 그 문화와 구조를 청산, 척결하는 것이 새시대의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다들 우리는 민족간 분단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빠른 시간안에 해소해야 한다. 민족분단은 식민지배의 유산이다.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민족이 분열하여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길 이유가 없다. 우리 겨레가 아직도 분열하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장)

여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외세의 민족분열정책에 우리가 희생되고 있다는 말이고 그 공작에 놀아난다는 말이다. 외세가 분열을 획책하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해야만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우리를 분열시켰던 강대국들은 그들의 문화를 팔아 자신들의 배를 살찌우고 있다. 우리가 민족사이의 살생국을 그만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탈진해서 영원히 남의 종살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민족간 대결을 고치는 바탕은 어디에서 만들어야 할까.

민족분단의 근원은 식민지배이고 지식의 원인은 강대국에 대한 우리 자신의 예속 때문이다. 민족의식과 자주의식을 소멸시켰던 식민지배의 논리와 그 범죄성을 척결하는 과제를 통해서 민족은 비로소 자신의 자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민족운명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민족의 자긍심과 희망에 대해 노래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일이 다. 그러나 자긍심은 자화자찬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약처럼 민족의 의식을 마비시켜 발전을 위한 기본동기조차 없애 버리게 될 것이다. 자화자찬은 정신의 어리고 발전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민족이 자기 마취제로서 구하는 것이다. 자신이 서 있는 바탕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잘못을 고치는데 힘을 쏟는 사람, 자신을 비관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겸손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높은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세계화니 뭐니 하면서 자신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세상유행에 휩쓸려 떠내러가는 것은 장마에 휩쓸려 떠내러가는 것과 똑같다. 정신을 차리고 나를 바로 살피자.

민족의 자긍심과 희망에 대해 노래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일이 다. 그러나 자긍심은 자화자찬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약처럼 민족의 의식을 마비시켜 발전을 위한 기본동기조차 없애 버리게 될 것이다. 자화자찬은 정신의 어리고 발전에 대한 자의식이 없는 민족이 자기 마취제로서 구하는 것이다. 자신이 서 있는 바탕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잘못을 고치는데 힘을 쏟는 사람, 자신을 비관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겸손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 높은 정신력의 소유자이다. 세계화니 뭐니 하면서 자신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세상유행에 휩쓸려 떠내러가는 것은 장마에 휩쓸려 떠내러가는 것과 똑같다. 정신을 차리고 나를 바로 살피자.

물난리 연중 방재활동 절실

국가차원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해야 유수지 확충-하수구 정비등 서둘러야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은 최근 4년동안 세 차례나 물난리를 겪었다. 수마가 합치고 간 자리를 닦고 배라물 수마에 수재민들은 정부의 '무방비'라는 또 다른 재앙 앞에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무능력과 무책임. 뒷북치는 사후약방문격의 행정보다는 예방능력을 높이는 수방정책의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치수·방재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해발생후 응급복구체계 미비를 타하기보다 재난에 대비한 예방조치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좋은 본보기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연방재해관리국'이 재해대책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해 다발지역에 재해방지 시설을 집중 건설하는 등의 사전예방기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은 95년 한 신 내지진을 교훈 삼아 총리 직속으로 '재해정보반'을 신설하고 24시간 재해발생을 감시하는 '정보집약센터'를 총리관저에 설치해 만일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국가차원의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명필교수(인하대 토목공학)는 "상시적이고 종합관리형 기구를 설치해 방재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수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송재우교수(홍익대·국립방재연구소장)는 "직할급 하천이 모여 국가급 하천으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유역 전체를 한 기관이 관리해야 하며, 황해도 유역 등에 2~3개의 댐을 짓고 북한과 공동관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호우시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바다쪽으로 흘려보내는 유수지의 확충과, 이번 수해가 하수구 정비 미비로 인한 역류현상 피해의 최대원인으로 지적됐듯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天災아닌 人災" 수재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문산읍 주민들이 지난 4일 시가지에서 행정당국의 허술한 방재행정을 비판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종교활동하면 오래산다"

매주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8%정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외국 연구논문이 나왔다. 지난달 미국의 '노인학자널'에 논문을 기고한 해럴드 페니 하박사는 "종교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은 사망률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6%나 낮았다"고 밝혔다. 64세 이상의 미국 성인 4천명을 표본추출해 조사한 이 논문은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논문은 또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성인 5천2백명에 대한 28년 동안의 장기 연구에서도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사망률이 23%나 낮았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세계 첫 안락사 법제화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10일 치유 기망이 없는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표, 의회에 제출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가 제정하는 '죽음의 권리장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의회 통과 후 3개월 내로 시행된다. 네덜란드는 지난 25년간 안락사를 죽을 권리로 보는 운동을 벌여왔고 98년 여론조사에서는 인구의 98%가 이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연간 사망자의 3%에 해당하는 인구가 안락사로 숨진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안락사가 많은 상황에서 신고없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사례만 늘려 법의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

안락사 절차는 환자나 부모의 동의에 따라 담당의사와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하고 이를 검사관 및 지역 심사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12세 미만은 부모와 담당의사 모두의 동의가,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락사 절차는 환자나 부모의 동의에 따라 담당의사와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하고 이를 검사관 및 지역 심사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12세 미만은 부모와 담당의사 모두의 동의가,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락사 절차는 환자나 부모의 동의에 따라 담당의사와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하고 이를 검사관 및 지역 심사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12세 미만은 부모와 담당의사 모두의 동의가,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락사 절차는 환자나 부모의 동의에 따라 담당의사와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하고 이를 검사관 및 지역 심사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12세 미만은 부모와 담당의사 모두의 동의가,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정보

수도권 물 이용부담금 늘어

9월부터 팔당상수원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민들은 수도요금에 25.5~41.2%의 물이용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통당 80원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안산 수원 성남 안성 등 22개 시·군에 대해 9월 사용분부터 부과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4인가구 수도료는 지금의 6,280원에서 7,880원으로 25.5% 오른다.

지하철에 팔각형의자 설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0월 19일까지 35개 지하철역 대합실에 나무 재질의 팔각형 의자를 설치해 승객들의 휴게 장소 및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자가 설치될 지하철역은 5호선 올림픽공원·청구·영등포시장·신정역, 8호선 압사·강동구청·몽촌토성역 등이다.

유아 교육비도 소득공제

유아들의 미술·음악학원 비용 등 유아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열고 유아미술학원과 음악 등 기타학원 교육비도 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76만여명의 유아 학부모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잘못된 민원처리 보상

대검찰청은 12일 민원사항의 친절 신속 공정 처리와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과 보상 등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검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공표했다. 헌장에 따르면 검찰청 직영의 잘못된 민원인원이 2회이상 같은 일로 검찰청을 방문한 경우 5,000원 가량의 교통비를 민원인에게 보상해 주고, 방문시간과 처리기간 및 절차, 처리예정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

암예방 치료지원 특별법

2001년부터 모든 국민에 대해 암의 조기진단이 의무화되며, 국가기관은 암 환자를 등록해 집중 관리하게 된다. 여야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예방 및 치료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고, 암 관리 및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및 보호자도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초콜릿으로 암·심장병 예방

네덜란드 국립환경보건 연구팀은 최근 초콜릿이 암과 심장병을 예방해 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6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초콜릿에는 암 예방 물질인 카테킨이 차보다 4배나 많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레이키 - 그날부터 기능력자가 되는 법 전수

세상의 여러 기공법과는 달리 누구나 그날부터 기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레이키(Reiki)입니다. 이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남미 여러 나라, 인도 등 포함하는 동안에 여러 나라에서의 수백만명에 대한 전수 실적이 증명되고 있어서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날부터 기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만 한가지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입니다. 확실한 자격과 높은 능력을 가진 레이키 마스터여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능력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전수 방법은 전통적으로는 명수(靈授)라고 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애틀먼트(Attunement)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애틀먼트를 하는 능력에 레이키 마스터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높고 확실한 능력을 가진 좋은 마스터에게 전수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운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박희준)는 레이키 마스터로서 높고 특별한 능력을 갖기 위해 2년에 걸쳐서 도합 10여 차례나 일본을 내방하면서 다양한 레이키 유파(원래의 레이키 유파, 우스이식 레이키와 카루나식 레이키)의 레이키를 전수받았고 다른 나라로 전수되지 않은 구비본 전통 레이키(眞傳)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도리어 일본인을 포함하여 외국인도 레이키를 배우려 할 수 있게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키(氣)는 일본에서 태어나(우스이 미 카오씨가 창시) 서양에서 발전해 일본으로 역수입된 경위를 가지고 있는 세계 인류의 '원문화' 자산입니다. 레이키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생명 에너지'이며 '사망의 혈령도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신 제미를 모르고 살던 많은 사람들을 활력과 행복감과 환희심이 넘치는 생활로 되돌려 주는 힐링(요법)의 도구입니다. 정통적 의도와 힘을 합쳐 많은 난치병 환자께 건강을 되찾아 주는 힐링의 도구입니다.

1.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우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에서는 레이키 능력 전수단계를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전문 임상 응용단계', '제4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으로 능력을 전수하고 있으며, 별도로 '카루나 레이키'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 제1단계 : 2일
(1) 1시간의 레이키 주입 (2) 2회의 어둠먼트 (3) 발명법 학습 (4) 12포인트 자타치료법 (5) 오라크리닝법 (6) 차크리조정법 (7) 레이키호흡법 (8) 동식물치료법·에너지주입법

※ 제2단계 + 제3단계 : 2일
(1) 2단계의 어둠먼트 3회, 3단계의 어둠먼트 3회와 각단계에 따른 상징물 전수 (2) 물질, 에너지, 상품, 음식물, 환경 등에 대한 에너지 주입, 정화법 (3) 원격 치료법, 본격적 레이키 시술법 (4) 생활 각방면에서의 레이키활용법 (5) 기가개발법, 합장행기법, 광명상법 (6) 셀프어둠먼트법, 침내개발법, 단축레이키요법 등

2. 지도자 : 박희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카루나 레이키마스터) 번역저술가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Reiki.co.kr> ◆
문의: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빈드시 미리 전화하고 오셔야 하며 공휴일에도 개별 지도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숲이 책임집니다!
전국에 숲의 돌풍을 몰고온 화제의 베스트 셀러, **드디어 3판 돌입!**
집안에 놓아두기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숲 100배 활용법

2100년 전 무덤에 묻혔던 여성의 시체가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게 만들었던 숲의 비밀,
우리 조상들이 장을 담글 때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면 금줄에 숲을 사용했던 비밀을 여기에 밝힌다

숲은 수많은 구멍과 탄소성분을 갖고 있으며 음이온 덩어리뿐만 아니라 원격외선을 방사하며 수많은 미네랄을 갖고 있어 미네랄의 보물창고라고도 불린다. 방부효과·여과효과·음이온 발생·전자파 차단효과·원격외선 효과 등등

한국목탄 연구소 소장 강재운 지음 값 9,000원

숲이 사람을 살린다

▶ 숲의 일반적 효능
①수분도 비네랄 워터로 만든다. ②숲을 참 속에 넣어 맛있는 밥을 짓는다. ③방울에 넣어 한때만 방울을 받는다. ④귀를, 아귀의 농약성분 제거에 숲을 넣는다. ⑤귀를 박박박, 기름을 오래 쓰게 한다. ⑥빨래도 숲을 넣어 보양하게 한다. ⑦공포의 전자파를 차단한다. ⑧독가스물 먹이지준다. ⑨유독한 실내공기를 숲속 같이 만든다. ⑩병실에 비치하면 생명에너지가 공급된다. ⑪목욕탕에 넣으면 알칼리 온천이 된다...등등

▶ 숲의 치료적 효능
①몸을 자연사 건강해진다. ②위궤양, 식중독, 설사, 장염, 맹장염, 변비, 고열, 간염, 황달, 담석증, 담낭염 등 ③속내계와 다이어트 효과 ④병, 번, 개, 모기, 불개미에 쓰였을 때 ⑤불이나 불에 태웠을 때, 습진, 피부염, 골수염, 각종 염증 ⑥중이염 ⑦눈의 염증 ⑧기관지염, 폐렴, ⑨신장염, 신부전증 ⑩알코올에도 특효 ⑪기미 주근깨도 없애준다. ⑫하천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⑬예수, 담수, 양식장에도 숲이 필수... 등등

지성문화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 2동 1423 (대지 빌딩 205)
☎02-2233-5554 02-2233-8090 FAX. 02-2238-4240